

나는 생명의 떡

저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47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 복음 6:48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요한복음 6:51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5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 복음 6 장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자신을 떡에다 비유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육신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 복음 6:49-50 절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에서 온 떡 두 가지를 대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 : 49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요한복음 6 : 50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만나는 약 1500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으로부터 나와 광야를 지날 때,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은 음식입니다. 만나는, 갓씨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출 16:31)고 하며, 이스라엘 사람은 애굽에서 나온 후 40 년 동안 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다음은 6:50 에서 예수님 자신을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러면 똑같은 하늘로부터 온 떡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었던 만나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나를 먹으면 사람으로 죽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물질로 되어 있어 입으로 들어가 변으로 나갔으나, 예수님의 떡은 우리의 영혼에 들어가 영원한 영의 양식이 됩니다. 만나를 먹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은 영생을 얻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만나와 예수님의 또 다른 차이는 무엇입니까?

만나는 하늘로부터 왔지만 물질로 되어 죽은 떡이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 온 산 떡, **living bread** 입니다. 예수님은 살아 있는 떡입니다. 예수님은 살아 있는 떡이기 때문에 이 떡을 먹으면 살게 됩니다.

최 권능 목사가 황해도 곡산군 어느 산곡에서 화전민들에게 전도하던 때의 일입니다. 깊은 산골에서는 집이 드문드문 있어서 사람을 모으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최 목사는 묘안을 냈습니다.

□아이구 배야. 사람 살려!□

그는 산골짜기가 울리도록 큰 소리로 고향을 치면서 뒹굴었습니다. 그러자 인근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모두 뛰어와 저마다 물었습니다.

□배가 어떻게 아프신가요?□

최 목사는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놀라게 해서 죄송하오. 사실은 배가 아픈게 아니라. 당신들이 앞으로 지옥 갈 생각을 하니 하도 마음이 아파서 해본 소리요. 여러분 제발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화전민들은 어이가 없어서

□뮈. 그럼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를 속인거야? 별 떡대거리 같은 소리 다 들겠네□

하고 욕을 퍼부어 댔습니다. 최 목사는 껄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웁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믿으라는 예수가 바로 떡대거리 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떡 중의 떡이요. 떡 중에 제일 머리가 되는

떡대가리가 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죽지 않는 천당에 갈 수 있지요.□

이 사람들은 어느새 최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깊은 산골짜기에도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마굿간에서 태어 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동물의 고기와 같이 떡으로 취급하심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떡으로 제공하셨습니다.

이와같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떡으로 깨뜨려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고통 가운데에서도 힘을 얻으며, 육체의 질병, 사업의 병, 자녀 교육의 병 등, 모든 병 가운데에서 치료와 해방을 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을 왜 떡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떡, bread 의 일차적 의미는 양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육체의 양식이 필요함과 같이 영도 양식도 필요합니다. 육신이 양식을 먹어야 힘을 내는 것처럼 영혼도 양식을 먹어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중생한 우리의 새사람은 영적 음식을 필요로 합니다.

[마태복음 4: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영적 음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떡이란 말은 영혼의 떡인 말씀으로 오신 분이란 의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은 사람의 구성 요소와 관련이 된 창조의 원리에 들어 갑니다.

[창세기 2:7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말은 영혼을 불어 넣으셨다는 의미와 똑 같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 넣으실

때 산 사람이 되었으므로 사람의 생명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물질인 흙에서 온 것이 아니고,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생령이 되었다는 말은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산 존재 living being 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흙으로 된 물질에서 온 몸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인 몸은 물질로 된 음식을 필요로 하고 사람의 영혼은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생명의 떡이란 말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 영혼의 양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 하여 내신 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명기 8: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걸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3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광야 길을 40년 동안 걸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40년 광야 길을 걸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광야 생활이 40년이 될지 4년이 될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결정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신명기 8: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걸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서는 구약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4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 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
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 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
마다 거둘 것이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매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는 영의 양식도 매일 먹어야 합니다. 매일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족하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하시며 한 가지 말씀을 더 붙이셨습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매일 매일 영혼의 양식을 취해야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을 덧붙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것 참 부담되네요.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매일 그 시간을 냅니까?” 할 사람은
없습니까?

약간 pint 가 빛나간 말 같지만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말하겠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탑을 하늘까지 쌓아서 헤어짐을 면하고 인간의 힘으로 한 번 멋있게 번영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곧바로 12 장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끝없는 축복과 번영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나로 큰 민족을 이루고, ----

같은 축복과 번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금하고 하나는 허락하셨습니다. 무엇이 다른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중심이 하나님 밖에 있는 것! 이것이 다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영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바벨의 길을 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십시오.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축복은 때 논 당상으로 굴러 오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수님이 당신을 떡으로 비유하신 것은 예수님의 수난을 의미합니다.

이 떡은 나의 몸이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빵이 빵아져서 되어 위장에 들어가야 영양분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도 부서져서 우리 영혼에 들어갑니다. 십자가에 부수어져서 부활하시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부수고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생명을 주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51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영원히 살기 위해 예수님의 몸인 떡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의 몸! 그의 말씀을 충만해지기 위해 필요로 하십니다.

다음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의 기능에 대해 공부를 하십시오.

요한복음 6: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떡의 첫째 기능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과 불사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7 | am 의 ‘나는 생명이니’ 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영생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면 영생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다음에

요한일서 5 : 11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영생입니다.

다음에

요한일서 5 : 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성령이 자기 안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성령과 예수님은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소유한 영생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것이 영생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소유하게 되느냐?

가장 쉽게 말하면 성령을 받으면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한 사람은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음은 영생의 효능에 대해 공부하십시오.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이 지배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이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 영생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성령께서 생명력을 왕성하게 하십니다. 활력과 생기가 넘쳐 납니다. 생명의 능력이 영생으로부터 나옵니다. 죽을 몸이 살아 일어납니다. 연약한 몸이 강해집니다.

다윗이 골리앗처럼 기골이 장대하여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생명의 능력입니다.

얇은 뱀이가 다리를 펴니다. 귀먹어리가 듣습니다. 절뚝발이가 뚛니다. 소경이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거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0 : 10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럼으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풍성히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 가면 생명력이 충만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타히티란 섬이 있습니다. 타이티는 프랑스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이 섬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반란은 진압되었고 폭도들은 법적인 절차에 의해 처형되거나 혹은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9 명의 불란서인과 6 명의 타이티 원주민 남자들, 12 명의 타이티 여자 원주민, 도합 27 명을 반란에 가담한 죄로 1790 년에 핏케인이란 섬으로 영구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핏케인 섬으로 들어가자마자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양심도 없고 도덕 윤리도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0 년후에 프랑스 남자하나와 원주민 남자하나와 원주민 여자 몇 명, 그리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어린아이들 몇 명만 남고 다죽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라고는 혼자 남아있는 그 프랑스 남자가 자기 옛날 집을 챙기다가 다 남은 성경을 한 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여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로부터 10 여년 후인 1810 년에는 그 섬의 인구가 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핏케인 섬은 낙원으로 변했습니다.

지금도 핏케인 섬은 도둑도 감옥도 위스키가 없는 섬이라고 합니다. 주민들은 부지런히 일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고 온 섬이 주일성수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예화가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2000 년 전에 사도 바울이 성경 한 권을 들고 유럽에 건너 온 후 유럽이 복음화되었습니다. 동양 사람들이 산신령이다 수신령이다 하며 부지런히 자연에 절할 때, 유럽 사람들은 성경의 기본 사상인 창세기 1 : 28 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자연을 정복하여 세계 1 등 국민이 되었습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독일 민족을 뽑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 민족인 German 족은 우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15 세기 까지만 하여도 흠어져 살던 미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German 족들에게 퍼뜨렸습니다. 그후 German 족들은 개화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세계의 최우수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 가면 생명력이 충만해진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 주시겠습니까?

두말할 필요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 와야 합니다. 영혼이 잘되어야 육체가 잘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먼저 영혼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영혼이 잘되어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고귀히 여겨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0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성경을 통해 각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을 우리 가슴에

지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그 분은 말씀으로 오신 분이기에 때문에

우리를충만케 하시기 위해

말씀을 필요로 하십니다.

매일 매일 이 양식을 충분히 섭취하심으로

강건한 영적 생활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 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

5. Retweet 를 하실 분은 (꼭 부탁드립니다만), 여러분의 home 로 가셔서, 글을 쓰는 Box 에

RT @ 를 type 하신 후 , space 한 후, Retweet 할 내용을 paste 하시면 됨.